

## 대학생 연줄망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최 중 혁

(강남대학교)

김 형 준

(송호대학)

안태숙 · 허정은

(강남대학교)

권혁수 · 김효정

(강남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연줄망을 측정하는 도구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 전문가집단의 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대면 심층 인터뷰 및 두 차례의 사전조사를 통해 연줄망의 관계적, 구조적, 기능적 영역의 개념을 도출하고 25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조사를 통한 최종결과로 연줄망의 관계적 영역 2개, 구조적 영역 7개, 기능적 영역 14개 등 총 23개 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연줄망의 기능적 영역에 대한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정서적·경제적·영적·사회관계적 기능 등 네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Cronbach's  $\alpha$ 값이 0.716으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학생들의 연줄망 측정도구는 대학생들이 처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가시화하는 동시에 대학생들의 특정한 욕구를 해소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연줄망, 사회적 관계망, 대학생, 신뢰도, 타당도

## 1. 서론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은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다는 사회적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개인들은 사람들과의 접촉과 관계맺음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사람들과의 접촉과 만남이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자원들과 연계되는, 중앙수구적 특징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은 한국 사회의 정치 및 경제 엘리트가 충원되어 온 특정한 정치·사회·경제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공적 제도의 발전 지체와 더불어 '개인적 연계' 혹은 '사적 연줄망'은 한국 사회 내 신뢰 저하의 요인으로 지적되었다(Fukuyama, 1995). 즉, 민주주의의 발달과 시민사회 형성 등을 사회 내 신뢰 수준의 긍정적 지표로 제기한 서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 개인들의 사회적 연결망에서 관찰되는 비공식적이고 폐쇄적인 '연줄'은 비판의 대상이다. 반면,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이나 '연줄'을 통해서 오히려 상호부조나 신뢰의 바탕이 마련되었고 그것이 복지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연복지(Network-based Welfare) 개념들이 주장되기도 했다(홍경준, 2000). 한국 사회 연줄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연줄망의 규모, 형식, 성격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김선업, 1991; 정재기, 1997; 이재열, 1998; 박준식·이재혁, 2000). 홍경준(2000)은 한국인들이 촘촘하고 비공식적인 연줄망을 통하여 자신들의 복지욕구를 대응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연줄망을 통해 해소되는 복지욕구는 개인의 고민상담, 금전적 문제, 취업에 대한 도움 등이 있다(이재열, 1998).

이렇듯 우리사회의 연줄망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있지만 특정 세대 혹은 연령별 범주에 대한 연줄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연줄망 또는 사회적 연결망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비행, 일탈 또는 집단 따돌림에서의 관계망 분석, 친구 및 또래집단에서의 교우 관계, 가족이나 교사 관계와 학교에의 적응이나 갈등 해결 방식, 지원과 지지 등 특정한 욕구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집중되어져 왔다(강성희·이성희, 1999; 고윤주·이은혜·Mendelson, 2001; 고윤주 외, 2002).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83.8%로, 대다수의 청소년이 성인으로서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대학생이라는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교육인적자원부, 2009)<sup>1)</sup>을 볼 때 고등학교 때까지의 타율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대학생의 시기는 매우 중요하며 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까지의 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발달론적 관점을 가진 심리사회 연구들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 연구들은 대학생들이 처하게 되는 새로운 과업과 욕구, 스트레스와 좌절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수동적인 중고등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능동적인 생활 방식이 요구되는

1) 교육인적자원부의 2008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비율이 83.8%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이라 함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 대학과정),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이 포함된다. 이에 여기서는 이를 통틀어 대학으로 묶어 대학진학률이라는 표현을 썼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학점, 새로운 대인관계 등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좌절감이 혼란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새로운 과제와 적응의 문제에 대하여, 각 대학의 학생 지도 관련기관에서 문제중심적 관점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던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그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김명소·임지영, 2003). 드물게 대학생의 사회적 관계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관계망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친구 또는 커플 간의 관계 분석(신희천·한소영, 2006)에 치우쳐 있거나 대학생 관계망을 고독감 등과 연결한 것(강성희·이성희, 1999)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어떠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연줄망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줄망을 통해 자신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이 연줄망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을 해 왔다면 이는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나 사회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공식적인 노력 뿐 아니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적이며 비공식적인 자원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에 미치는 함의가 크다고 하겠다.

## 2. 이론적 배경

### 1) 연줄망의 개념과 구성요소

#### (1) 연줄망의 개념

최근 여러 학계에서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는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축적되는데, 그러한 이유로 네트워크(연결망)는 사회자본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인식되고 있다(Coleman, 1988). Lin(2001) 역시 사회자본을 네트워크 속에서 나오는 사회적 자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결망에는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귀속적인 연줄로 얽혀있는 것이 있는 반면, 대단히 공식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묶여진 것도 있다(홍경준, 2000). Grootaert, Narayan, Jones과 Woolcock(2004)은 아프리카 두 나라의 사회자본 측정연구에서 네트워크의 세 가지 속성으로 '결속형(bonding)', '교량형(bridging)', '연결형(linking)'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결속형 네트워크란 가족이나, 지리적 환경에 근거한 이웃, 친한 친구, 직장 동료 등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귀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연결형이나 교량형 네트워크는 다양한 수준과 규모의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연결시켜 광범위한 정체성과 호혜성을 갖게 하는 측면에서 공식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한상미, 2007). DeGraff(2003)는 사회자본의 형태를 공식적 사회자본과 비공식적 사회자본, 짙은 사회자본과 얇은 사회자본, 내부지향적 사회자본과 외부 지향적 사회자본 그리고 연결적 사회자본과 유대적 사회자본,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 이와 같은 분류에 따르면 '연줄망'은 비공식적 사회자본이며, 짙은 사회자본이고 내부지향적 사회자본인 동시에 유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최영출, 2006).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연줄망'과 '연결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연줄망이나 연결망 모두 인간의 밀접한 사회적 관계로서 네트워크를 지칭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박찬웅(1999)은 연줄망을 '혈연주의, 학연주의, 지연주의, 가족주의 등에서처럼 가입 기준이 귀속적이거나 대상의 자격이 의도적으로 제한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김용학(2007) 역시 연줄망을 '지연이나 학연, 혈연처럼 특수적이고 폐쇄적인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의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지칭할 때는 '연줄망'을, 사회연결망 분석이나 집단 간의 연계를 지칭할 때는 '연결망'으로 구분한다(정재기, 1997).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비공식적 연결망과 관련해서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혈연, 학연, 지연 등 인연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회 속 인간관계의 유형으로 '비공식적 결속' 혹은 '연망'이라는 용어(이명희, 2001)가 사용되기도 하고, 사회성원들이 제각기 가진 타인과의 연결고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연줄망'(홍경준, 2000), 그리고 동호회나 시민단체 활동과는 달리 당사자의 선택보다는 생애 과정을 통해 획득한 특정한 경험의 공유가 회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즉, 혈연, 지연, 학연에 따라 조직되는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로 대표되는 '연고집단/연고주의'(유석춘, 2004)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 외 '귀속적 연결망'(김우식, 2006), '유교공동체'(김보경, 2005) 등의 용어들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줄에 근거한 비공식적 연결망'이라는 의미로 '연줄망'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 (2) 연줄망의 구성요소

연줄망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호명항(Name Generator)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설문조사(General Social Survey on Social Networks)' 척도를 수정한 Franke(2005)의 연구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논한 대상'을 적게 하고 그들끼리의 관계, 성별, 인종에 대해 묻고 있다. Campbell, Marsden과 Hurlbert(1986)는 네트워크 자원과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의 관계 연구에서 호명항을 활용하여 교육과 네트워크 자원의 구성, 획득된 지위(직업적 위신, 가게 수입) 등을 측정하고 있다. 한국사회 연줄망 측정에 관한 연구 중, 이재열(1998)은 '최근 5년간 취업문제, 사업상담, 은행대출, 물건 구입, 고민 상담 등에서 도움 받은 사람'을 거명하게 한 후 연줄망의 규모(거명한 사람 수)와 밀도(거명된 사람들 간의 관계의 중첩성), 도움 받은 사람과 그 내용을 측정 항목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박준식·이재혁(2000)의 연구도 연결망의 크기, 밀도를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있다. 김선업(1991)은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13개로 요약<sup>2)</sup>한 후 각각에 대한 호명항을 사용하여 관계 영역으로서 응답자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핵심연줄과 일상연줄로 구분을 시도 하였고, 호명된 사람의 교육수준, 출신지역, 직업, 경제적 수준, 만나는 빈도, 친분 정도 그리고 호명된 사람들 사이의

2) 중요한 정보를 주거나 소식을 알려준 사람, 사적인 비밀을 털어 놓은 사람, 주말휴가나 여름휴가를 같이 보낸 사람, 내가 경제적으로 도와준 사람, 사적 문제에 대해 상의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시간이 뺏기고 일에 지장이 있더라도 도와주는 사람, 정치 의견 주고 받는 사람, 외식, 영화 같이 본 사람, 집안일 거들어주는 사람, 법적 문제 도와주는 사람, 주요 물품 빌려주는 사람, 돈 빌려 주는 사람

관계 및 친분 정도 등을 질문하였다. 정재기(1997)도 연줄망 측정을 위해 호명항을 사용하여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상의하는 사람'을 적게 하여 그 수에 따라 규모를 측정하였으며 밀도와 함께 호명된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의 성별 및 나이, 출신지역, 그리고 기능적 영역 파악을 위해 호명자와의 주된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측정항목에 넣었다. 최현숙(1991)은 '동거가족 외 사적으로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 일상생활을 주로 상의하는 사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하는 사람'에 대해 제시된 보기에서 순서대로 3개씩 적게 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연줄망이 응답자와 연줄망 구성원과의 관계적 속성과, 밀도와 규모 등을 나타내는 구조적 속성, 그리고 연줄망의 역할과 관련된 기능적 속성으로 구성되어짐을 알 수 있다.

### ① 관계적 속성

관계적 속성이란 연줄망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알고 있는 사이인지, 상호간의 관계의 강도와 친밀성은 어떤지를 설명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관계의 강도란 정서적 친밀도, 상호작용, 접촉 및 의사소통 빈도 및 관계의 지속기간을 의미한다(Granovetter, 1973). 특히 정서적 강도는 관계의 가까움을 측정하는 것으로 먼저 호명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친밀성이란 구성원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신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인 간에 오고가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교환의 깊이를 측정하게 해 준다. 친한 관계는 개인이 어떤 지역에서 경험을 나누고 그 경험과 관계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며 그러한 친밀성은 약속이행과 수용을 수반하고 개인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게 해 준다. 또한 더 친밀한 관계는 가족사나 정치적 의견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Marsden and Campbell, 1984).

한편 김선엽(1991)은 연줄망의 관계를 개인의 선택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핵심연줄과 일상연줄로 나누었는데 핵심연줄은 가족이나 친족과 같이 관여수준이 강한 실질적 관계를, 일상연줄은 동료나 이웃 등 관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형식적 관계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연줄망의 관계적 특성을 통해 개인의 연줄망의 범위를 알 수 있고 관계적 특성에 개인이 의존하는 방식이나 내용, 혹은 각각의 연줄망이 개인에게 기여하는 방식도 알 수 있다.

### ② 구조적 속성

연줄망의 구조적 속성으로는 크기와 밀도, 동질성 및 이질성, 접근성 등이 있다.

첫째, 연줄망의 크기란 개인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를 의미하는 것(Scott, 2000)으로 사회복지에서 연줄망의 크기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외부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Seeman과 Berkman(1988)은 연줄망 크기가 클수록 도구적·정서적 지지가 증가한다고 하면서, 연줄망 크기는 사회적 관계와 사회활동 참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년층의 건강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연줄망의 크기가 클수록 사회적 지지망의 이용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보다 넓은 사회 관계망 안에 지지의 자원들이 보다 많기 때문이다. 연줄망의 크기는 젊은 층보다 노인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퇴직, 재배치 등으로 사회적 연대가 소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연출망의 밀도란 사회 연결망 구성원들이 서로 알고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Heaney and Israel, 2002)으로 호명된 사람들이 서로 알고 있는 관계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구성원 간 밀도는 참여한 사람들 간 관계의 응집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밀도가 높다는 것은 서로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진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들부터 협력과 지원을 받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손동원, 2008).

친밀한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정보를 더 많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나아가 행위적 기대의 확립이라는 규범의 확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도 한다(Rowley, 1997). Ostgaard와 Birley(1996)는 공간적으로 더 약한 연결이 회사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는 Granovetter(1973)가 개인의 구직에 있어서 그 사람의 중점 네트워크 외에 있는 연결망이 가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한 '약한 연결론'을 지지한다.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에서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들의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반면에, 연출망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도 한다. 밀도가 높은 사회 연결망에 속한 노인들은 현재의 친숙한 네트워크 체계에 만족하여 정서적, 도구적 도움을 받는 반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동질성은 연출망의 구성원들이 인구통계학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이질성은 연출망 내에 서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분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연출망의 다양성을 의미한다(Burt, 1982).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과 쉽고 편하게 지내는 경향이 있어 큰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Lin, 1999), 이질적인 연출망보다 동질적인 연출망에서 도구적, 정서적 지지가 더 많이 제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Berkman and Glass, 2000). 또한 동질적 연출망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도구적 지지보다 더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교제의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동질적인 연출망의 노인들의 경우, 만일 그들이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지지를 현재 받고 있다고 인지한다면,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 사회 네트워크의 동질성과 사회활동 참여 의도 간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는 노인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근접성이란 네트워크 구성원의 거주지 사이 혹은 접촉 개인 사이의 지리적 거리(Heaney and Israel, 2002)를 뜻하는 것으로, 근접성이 높으면 타인들에게 도움을 쉽게 제공함으로써, 개인들이 보다 생산적 활동에 연계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노인의 경우 새로운 사회활동 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개인들이 사회적 연출망 구성원과 근접하게 살고 있어서 만나기 쉽다면, 보다 높은 사회적 지지, 특히 도구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 ③ 기능적 속성

연출망을 기능적인 면에 따라 도구적인 기능과 정의적인 기능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도구적인 기능은 필요한 정보나 자원 등 물질적인 도움의 기능을 의미하고 정의적 기능은 비물질적 도움의 기능, 즉 정서적 지지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연출망의 도구적 기능에 관심을 두고 연구했던 대표적 학자인 Granovetter(1973)는 '약한 연결론'을 통해 보다 많은 집단과의 연결 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로 구직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주장하

고 있다. 여기에 Lin(1982)은 지위 획득과 같은 도구적 행위를 위해서는 더 높은 지위와 접촉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회적 자원 이론<sup>3)</sup>을 주장하고 있다. Ensel(1979)의 연구는 높은 지위에 있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은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한 최초의 연구로서 구직과정에서 남성연줄이 여성연줄보다 상위 지위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남성은 남성연줄에 여성은 여성연줄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여성이 낮은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성연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Marsden과 Hurlbert(1988)는 456명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현재 직업에 있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하였는데 사용한 연줄의 지위가 자신이 획득한 지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사회의 연줄망도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연줄망의 밀도는 떨어지고 규모는 증가하며 연줄망의 도구적 기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업, 1991: 정재기, 1997).

연줄망의 또 다른 기능인 정의적 기능은 비물질적 도움으로 정서적 지지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Cohen과 Syme(1985)은 개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인지, 감정, 행동,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끼치며, 그 결과 실제로 제공된 지지의 명백한 변화 없이도 개인의 삶의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노령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받는 정서적 지지의 정도가 감소한다는 연구가(Heller, Swindle and Dusenbury, 1986) 있지만 몇몇 연구들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보다 나은 건강과 삶의 질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사회적 활동 참여와 증가된 높은 사회적 지지 수준 사이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사회적 지지의 이용 가능성과 적절성이 사회 활동 참여에 대한 노년층 개인들의 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요인 양자 모두가 건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연줄망은 고민 상담이나 정서적 안정 등의 정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김선업, 1991).

## 2) 대학생 연줄망의 특성

우리나라 성인 연줄망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왔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의 연줄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인세대에 포함되거나 청소년에 포함되어 연구되는 등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대학생 시기는 후기 청소년기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의 측면도 가지고 있고, 또한 나름의 요구와 필요를 가진 개체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청소년은 성인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별 탈 없이 성인이 되어야만 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꾸려가야 하는 개체이기도 하다(정상진·정주훈, 2006). 무엇보다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전환되며 새로운 적응이 시작되는 대학생활 시기는 자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시기(이창호·전강구·한덕웅, 1991)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이행되는 사회적 전환기에서 오는 문제

3)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자원은 거시 사회 구조를 나타내는데 형태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지위가 높을수록 점유자의 수가 적고, 아랫부분을 더 잘 살펴볼 수 있으며 더 많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관찰한다.

뿐만 아니라 이성교제, 동성친구관계, 교수와의 관계, 경제적 문제, 장래문제, 학업문제 등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김교현·전겸구, 1992). 특히 대학 졸업 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Erickson, 1968),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생의 발달단계에서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과정을 안고 있다(안창일·오가혜, 2006).

대학생은 대학 입학 후 사회관계의 변화를 겪기도 하고 구성된 관계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시기(김광숙·라진숙·박주영·조윤희, 2008)이므로 대학생들의 사회관계망으로 설명될 수 있는 연줄망의 친밀성과 규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대학생들은 예비사회인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강성구·임경원, 2006). 대학생 시기의 친구관계는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며, 친구가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 대학생의 연줄망에서 가족과 친구가 가장 가깝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권민하, 2004; 이정희, 2006). 이는 대학생의 연줄망이 아동기의 가족 중심에서 청소년기의 또래 중심으로 변해간다는 결과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성희·김주희(2001)의 연구에서 밝혀진, 나이가 들수록 이웃이나 학연 등과의 관계가 중요해진다는 결과와도 상통한다.

한편, 직업 탐색과정에서는 친인척과 친구로 구성된 사회적 지원의 네트워크가 강조되는데 김병주·손석정(2005)은 사회적 관계망이 진로탐색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진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경상(2001) 역시 직업정보 탐색과정에서 개인적 연결망의 동원은 공식적인 통로에만 의존할 때보다 선택수단이 확장되므로 합리성이 극대화되는 과정이며 효율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대학생의 연줄망은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강성희·이성희, 1999).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은 대인관계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최영희, 1999) 가족이나 친구의 지원이 유용하다면 학업 및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을 더 잘 하며 친구와의 관계에서 받는 지원이 많을수록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커진다(고윤주 외, 2001). 종교나 신앙을 매개로 한 연줄망도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종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나 영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부적응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김교현·전겸구, 1992). 이처럼 다양한 사회에 대해 적응을 해 나가며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생에게 연줄망은 중요하다. 대학생들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연줄망은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진출에 발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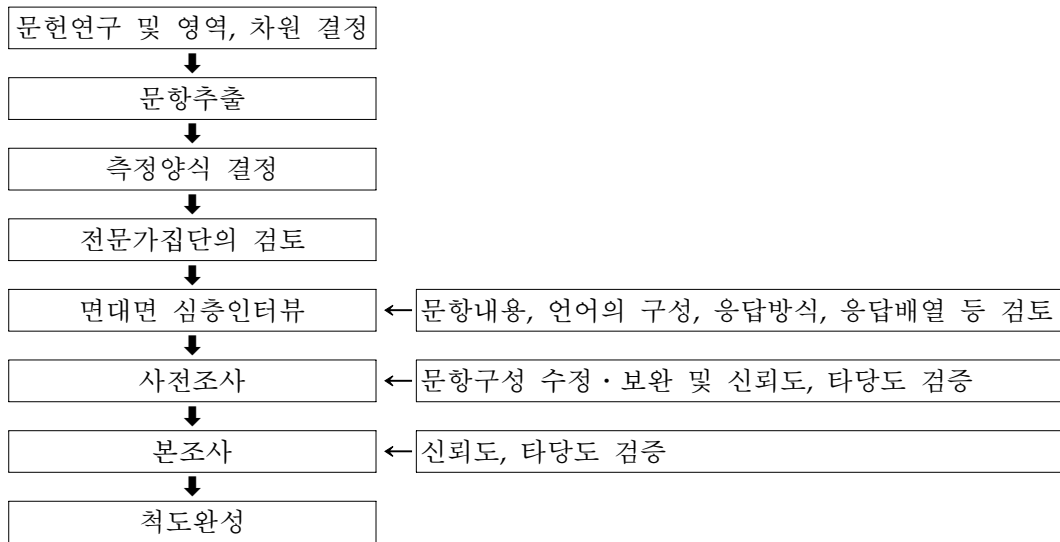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척도를 활용하여 연줄망의 구조적 특성(크기, 밀도) 및 관계적 특성을 파악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능적 특성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줄망을 구조적, 관계적, 기능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연줄망이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 도구 개발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사회학적 측면에서 현상을 파악하고 해석하는데 주력했다면 본 연구는 욕구충족이라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3. 대학생 연줄망 측정도구 개발

#### 1) 척도개발의 단계

대학생의 연줄망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우선 연줄망과 대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망, 대학생의 욕구에 관한 문헌연구와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문항을 개발하고 전문가집단의 토의를 거쳐 문항을 검토한 후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면대면 심층인터뷰를 함으로써 개발된 척도에 정확성을 기했다. 이렇게 개발된 문항을 갖고 1차 50명, 2차 5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에 대해 수정·보완을 거쳐, 예비척도를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정되어 확정된 척도로 52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를 확정지었고 완성된 척도에 대해 신뢰도 검사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척도개발의 단계

#### (1) 문헌연구 및 대학생 연줄망의 영역과 차원 설정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설정한 연줄망의 측정영역과 차원은 <표 1>과 같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연줄망의 기본적인 영역을 관계적, 구조적, 기능적 영역으로 구성했으며, 각 영역별로 하위차원을 두었다.

우선 관계적 영역은 응답자와 연줄망 구성원과의 관계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핵심연줄과 일상연

줄로 구분했는데 핵심연줄은 관여수준이 강한 실질적 관계를, 일상연줄은 형식적 관계를 측정한다. 구조적 영역은 밀도, 규모, 이질성 등의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응답자들끼리 서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 규모와 그 구성의 특성이 얼마나 다양한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영역은 도구적 차원과 정의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연줄망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자신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연줄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면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연줄망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연줄망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 전자를 '도구적 기능', 후자를 '정서적 혹은 정의적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도구적 차원은 물질이나 정보의 교환, 정의적 차원은 정서적 혹은 심리적 기능이 포함된다.

〈표 1〉 대학생 연줄망 척도 측정영역과 차원

영역	차원	내용	
관계적 속성	핵심연줄	관여수준이 강한 실질적 관계	응답자와 연줄망 구성원과의 관계유형(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등) 및 가까운 정도
	일상연줄	관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형식적 관계	
구조적 속성	밀도	연줄망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친밀도	
	규모	응답자와 연결된 사람들의 수	
	동질성	연줄망의 구성원들의 인구학적 특성의 유사성	
기능적 속성	도구적	물질적, 정보의 교환	
	정의적	정서적, 심리적 교환	

## (2) 전문가 집단의 논의와 결과

연줄망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구성영역 및 지표를 설정하여 내용적 타당도를 검증할 전문가 집단으로 사회복지학과 교수 2명, 현장실무자 1명, 연구원 3명 등 총 6명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 전 연줄망 및 사회 자본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후 일주일에 1~2회씩 총 20회에 걸쳐 연구모임을 가졌다. 연구모임을 통해 연줄망 및 후기 청소년에 관한 국내외 문헌탐구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그러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문항을 도출하였다. 문항이 도출된 후에는 설정된 문항이 구성개념의 영역을 대표하는지, 또 문항에 대한 설명력이 충분한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문헌탐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에 대한 보완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면대면 심층인터뷰를 통해 문항에 대한 평가와 수정을 진행했다.

각 영역에 대한 측정지표에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토대로 관계유형이나 친밀도, 밀도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었으며 관계적 영역과 구조적 영역에서는 응답자가 스스로 답변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응답자는 해당하는 번호에 표기하도록 했으나 문항마다 '기타' 응답란을 만들어 별도의 표기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줄망의 기능적 속성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대학생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조사된, 대학생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고자 했다.

### ① 관계적 속성

관계적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6개월 간 중요한 일을 상의한 사람의 이름을 다섯 명까지 쓰게 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망이 핵심연줄에 치우쳐 있는지 일상연줄에 치우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② 구조적 속성

응답자가 호명한 사람의 수는 연줄망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한국사회 평균 연줄망 규모가 3.4명 정도인 것을 감안해 5명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다섯 명 모두를 의무감으로 억지로 표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설문문항에 칸을 모두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따로 표기하였다. 또 연줄망의 구성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원의 직업,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으로 요인에 대한 문항을 작성,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편 연줄망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연줄망 구성원 소시오그램에 호명된 사람들이 서로 잘 알고 있는 경우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그 실선의 수를 토대로 척도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 ③ 기능적 속성

연줄망의 기능적 속성은 도구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으로 나뉘는데 각 속성의 측정도구를 추출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대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나 욕구들을 영역별로 나누었다. 그 결과 대학생들의 가장 큰 욕구는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가족중심의 관계망에서 벗어나 친구중심의 관계망으로 옮겨가는 시기로 관계를 맺는 사회적 기술의 여부가 대학생활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준다. 때문에 각종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관계의 범위를 넓혀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게 된다(Erickson, 1968). 이렇게 형성된 관계망을 통해 이들은 사회적 또는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 즉, 서로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만족감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은 종교를 통해서 얻기도 하는데 Ellis(2000)는 종교가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짓기도 했다. 종교 그 자체가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며 청소년의 79.6%가 종교가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서(구지현·서경현·정성진, 2005) 대학생들에게 영적 욕구 또한 매우 중요한 욕구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제적 욕구는 물질적인 지지 즉, 경제적인 문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지지 기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학생의 욕구들을 반영함으로써 연줄망의 기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총 25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했으며 영역별로는 관계적 영역 2문항(응답자와의 관계유형, 가까운 정도), 구조적 영역 7개 문항(호명자의 수, 호명자간의 관계특성-성별, 연령, 직업, 교육수준, 출신지역, 호명자와의 친밀도), 그리고 기능적 영역으로 12개 문항(각각의 호명자들로부터의 도움내용, 도움 정도)이다.

## (3) 면대면 심층인터뷰

개발된 문항이 타당한지 설문지에 대한 대상자들의 직접적인 의견탐색을 위해 면대면 심층인터뷰

를 진행했다. 대상자는 총 10명의 대학생들이었으며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 취합을 위해 남녀 대학생을 같은 비율로 선정했다. 대상자들과의 심층인터뷰 결과 설문지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보완과 수정과정을 가졌다.

〈표 2〉 면대면 심층인터뷰 결과

논의	내용	수정사항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열의 문제</li> <li>· 기타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공간필요</li> <li>· 설문응답방법에 대한 추가설명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배열로 수정</li> <li>· 문항 옆 밑줄 그어 공간 확보</li> <li>· 응답방법 설명 추가</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 중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문장에 대한 반감을 줌.</li> <li>· '운동, 영화'는 단순한 의미만 내포</li> <li>· 관계 중 '종교'와 관련된 사람 필요</li> <li>· 설문지 제목인 '연줄망'이란 단어가 부정적 어감을 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움이 내용에 대한 응답을 '그렇다, 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수정</li> <li>· '취미와 여가를 같이 한다'로 변경</li> <li>· 종교관련 지인 항목 추가</li> <li>· 설문지제목을 '개인적 인간관계망'으로 변경</li> </ul>

#### (4) 사전조사

위의 과정을 통해 선정된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사전조사는 2009년 2월 10일 강남대학교 동계 영어특강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 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 응답이 부실한 1부를 제외한 4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차 사전조사는 2009년 4월 17일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학년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중 부실한 응답자 4명을 제외한 54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1차 사전조사에서는 대학생 연줄망의 기능적 영역에 대한 문항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문항이나 그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을 살피고 각 문항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지를 보았다. 또한 연구자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학생들에게 해석될 수 있는 문항이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항 또는 잘못된 표현된 문항들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총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연줄망의 기능적 영역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 각 문항 모두 내적 일관성을 설명해 주는 알파계수(Cronbach's alpha)가 0.600에서 0.668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전체 12문항의 알파계수는 0.646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sup>4)</sup>. 이에 12개 문항은 대학생의 연줄망의 기능적 속성을 알아보는데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1차 사전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의 3점 척도(① 정말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전

4) 문항 전체 수준인 경우, 알파계수(Cronbach's alpha)가 0.5이상, 개별 문항 수준인 경우 0.9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파계수가 0.7이상이면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다. 만약 신뢰도가 이보다 낮은 경우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① 측정항목의 모호함을 제거하거나, ② 측정항목수를 늘리거나, ③ 사전에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항목을 이용하거나, ④ 척도점을 조정하거나, ⑤ 측정대상자가 모르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는다(김계수, 2007: 157).

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범위가 좁아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 및 무응답 경우가 발생하여 문항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특히 척도점이 너무 적으면(4점 척도 이하) 분석시 응답자의 태도를 정확히 밝힐 수 없으며 분석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척도점의 수가 많으면(7점 척도 이상) 조사자가 각 척도에 적합한 설명을 붙이기가 어려워지지만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의 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며 분석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채서일, 2001: 230).

이에 대학생 연줄망의 기능적 영역에 대한 측정문항을 5점 척도(① 정말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그렇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수정하였다.

또한 1차 사전조사 대학생 응답자의 의견과 포커스 그룹의 재검토를 통해 측정문항의 표현 수정과 대학생 연줄망의 기능적 영역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는 문항을 4개 더 추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2차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사전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조사를 위한 대학생 연줄망의 기능적 영역에 대한 최종 측정문항은 총 16개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최종 16개 문항의 알파계수는 0.731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3> 대학생 연줄망의 기능적 영역 척도 항목 수정

구분	수정 전(1차 사전조사)	수정 후(2차 사전조사)
문항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li> <li>2. 용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li> <li>3. 학비를 지원한다.</li> <li>4. 학업에 도움을 준다.</li> <li>5.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한다.</li> <li>6. 우울하거나 화날 때 위로가 되거나 나의 말을 들어준다.</li> <li>7. 취미나 여가활동을 같이 한다.</li> <li>8. 종교 활동을 같이 한다.</li> <li>9. 신앙에 대한 고민을 같이 이야기한다.</li> <li>10. 이성이나 친구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한다.</li> <li>11. 가족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 한다.</li> <li>12. 나에 대해 지지와 인정을 많이 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에게 아르바이트자리를 소개해주었다.</li> <li>2. 용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li> <li>3. 학비를 지원한다.</li> <li>4. 학업수행(과제나 시험 준비 등)과 관련된 걱정을 나눈다.</li> <li>5. 진로에 대한 고민을 들어준다.</li> <li>6. 우울하거나 화날 때 위로를 해 주거나 나의 말을 들어준다.</li> <li>7. 취미나 여가활동을 같이 한다.</li> <li>8. 성경이나 불경 등 교리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한다.</li> <li>9. 종교 활동이나 고민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면서 신앙심이 깊어진다.</li> <li>10. 종교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도움을 주었다.</li> <li>11. 이성이나 친구관계에 대해 같이 이야기한다.</li> <li>12. 가족과의 갈등에 대해 같이 이야기한다.</li> <li>13.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믿어주고 긍정적인 지지와 인정을 한다.</li> <li>14. 학생회 혹은 동아리활동 등에 같이 참여한다.</li> <li>15. 동창회 혹은 결혼식 등의 모임에 같이 참여한다.</li> <li>16. 학교생활(선배관계, 교수와의 관계,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li> </ol>
전체 문항수	12문항	16문항
척도점의 수	3점	5점
신뢰도	0.646	0.731

(5) 본조사

본 조사는 서울·경기지역 소재의 6개 대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인문사회계열 320명, 자연과학계열 100명, 예체능계열 100명의 대학생 총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집단배포를 통해 응답하도록 하였고, 총 520부를 수거하고 그 중 응답이 부실한 20부를 제외한 500부를 유효사례로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인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N=500

변수		빈도(%)	변수		빈도(%)	
성별 (n=494)	남자	166(33.2)	가족형태 (n=490)	조부모+부모+자녀	52(10.6)	
	여자	328(66.4)		부모+자녀	358(73.1)	
학년 (n=493)	1학년	230(46.7)		조부모+손자녀	2(4)	
	2학년	119(46.7)		한부모+자녀	33(6.6)	
	3학년	77(15.6)		형제자매와 동거	5(1.0)	
	4학년	67(13.6)		혼자산다	19(3.8)	
연령 (n=492)	19-20세	186(37.8)		가정의 경제수준 (n=491)	기타	21(4.2)
	21-22세	155(31.5)			상	19(3.9)
	23-24세	74(15.0)			중상	103(20.6)
	25-26세	49(10.0)			중	267(54.4)
	27세 이상	28(5.7)	중하		92(18.7)	
연령 평균	22.21세	하	10(2.0)			
거주형태 (n=493)	자취	64(13.0)	종교 (n=491)	불교	52(10.6)	
	하숙	12(2.4)		기독교	161(32.8)	
	기숙사	59(12.0)		천주교	73(14.9)	
	부모님과 함께	341(69.2)		없다	200(40.7)	
	기타	17(3.4)		기타	5(1.0)	
거주지역 (n=491)	서울	177(36.0)	출신지역 (n=491)	서울	211(43.0)	
	경기	241(49.1)		경기	152(31.0)	
	충청	30(6.1)		충청	20(4.1)	
	강원	22(4.5)		강원	23(4.7)	
	전라	4(8)		전라	20(4.1)	
	경상	6(1.2)		경상	47(9.6)	
	제주	1(2)		제주	4(8)	
	기타	10(2.0)		기타	14(2.9)	
거주지역 형태 (n=491)	도시	394(80.2)	출신지역 형태 (n=491)	도시	396(79.2)	
	도시·농촌복합	77(15.7)		도시·농촌복합	63(12.6)	
	농어촌	20(4.1)		농어촌	32(6.4)	

## 2) 대학생 연줄망의 관계적·구조적 영역 분석 결과

### (1) 관계적 속성

대학생 연줄망의 관계적 속성 측정을 위한 문항은 지난 6개월간 중요한 문제를 상의한 분이 있는 지에 대해 가족을 포함한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떠올린 후 그 분들이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설문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5>와 같이 응답자가 중요한 순서대로 응답한 구성원들을 기준으로 응답자가 호명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가까운 정도를 관계A부터 관계E까지 표기하였다. 대학생의 연줄망 관계유형은 관계A부터 관계E에 이르기까지 응답자와의 관여수준이 강한 실질적 관계인 핵심연줄은 가족으로, 일상연줄의 관계유형은 주로 초중고 동창, 과친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연줄망 관계유형

단위: 명(%), N=500

관계유형	관계A	관계B	관계C	관계D	관계E
가족	276(55.3)	172(36.0)	98(22.6)	39(11.8)	29(11.0)
친척	7(1.4)	25(5.2)	10(2.3)	9(2.7)	4(1.5)
초중고동창	97(19.4)	116(24.3)	130(30.0)	109(32.9)	79(29.9)
과친구	46(9.2)	74(15.5)	95(21.9)	85(25.7)	64(24.2)
동아리친구	2(0.4)	5(1.0)	5(1.0)	2(0.6)	3(1.1)
과선후배	8(1.6)	18(3.8)	25(5.8)	15(4.5)	16(6.1)
동아리선후배	-	5(1.0)	5(1.2)	3(0.9)	3(1.1)
애인	30(6.0)	16(3.3)	18(4.1)	21(6.3)	14(5.3)
이웃(동네친구, 형, 언니 등)	12(2.4)	23(4.8)	22(5.1)	20(6.0)	19(7.2)
종교관련 지인	5(1.0)	9(1.9)	9(2.1)	8(2.4)	11(4.2)
기타	16(3.2)	15(3.1)	17(3.9)	20(6.0)	22(8.3)
계	499(100.0)	478(100.0)	434(100.0)	331(100.0)	236(100.0)

### (2) 구조적 속성

#### ① 밀도

연줄망의 밀도는 사회 연결망 구성원들이 서로 알고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호명된 사람들이 서로 알고 있는 관계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본 조사에서 밀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소시오그램에 응답자가 표시한 실선의 수에 따라 작위적으로 척도를 구성하여 분석했으며 그 결과 응답한 대학생의 연줄망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밀도는 평균 0.36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명된 사람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가 10명 중에서 3.6명 정도로 서로 친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한국인의 평균적인 밀도가 약 0.53으로 나타난 동일한 조사연구의 정재기(1997)의 연구결과를 비교해 볼 때, 일반 성인보다 대학생이 관계하는 구성원들 간의 친한 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② 규모

연줄망의 규모는 대학생 응답자 개인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조사의 경우 응답 대학생과 연결된 사람들의 수는 평균 4.01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조사방법으로 가족을 포함한 가까운 주위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5명까지 호명하도록 한 정재기(1997:28)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은 평균 2.78명의 사람과 자신의 주요한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 ③ 동질성

동질성은 연줄망의 구성원들이 인구통계학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는 대학생 연줄망의 다양성을 나타낸다. 응답자가 호명한 구성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출신지역 등으로 살펴보았다<sup>5)</sup>.

호명한 관계A부터 관계E 유형까지 남학생이 호명한 관계의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은 비율(약 60:40)이고, 여학생이 호명한 관계의 성별 비율은 거의 여성 80% 이상, 남성 20% 정도로 여대생의 경우 일차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남성보다는 여성을 많이 선호하는 동질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대생이 호명한 관계A부터 관계E유형이 가족의 경우 어머니, 친구의 경우 동성친구의 빈도가 높은 동질적인 연줄의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각 관계유형별 구성원의 직업은 학생이 가장 많이 나타남으로써 이러한 동질적 연줄망은 이질적 연줄망보다 도구적, 정서적 지지가 더 많이 제공된다(Berkman and Glass, 2000).

## 3) 대학생 연줄망의 기능적 속성 척도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 (1) 탐색적 요인분석

#### ① 분석방법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서로 유사한 변수들끼리 묶어주는 방법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끼리 동질적인 몇 개의 집단으로 묶어주는 통계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연줄망의 기능적 영역 척도문항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변수들을 요인으로 분류한 R-type 요인분석으로, 요인의 추출모델은 공통요인분석(CFA, common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5) 대학생 연줄망의 구조적 속성에 따른 분석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계A부터 관계E까지 각각 호명된 구성원들의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는 성별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계A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호명한 구성원들의 성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71.334, p<.001$ ). 관계A의 경우 남학생이 호명한 관계A의 성별은 남성 104명(56.85%), 여성 79명(43.25%)이고, 여학생이 호명한 관계A의 성별은 남성 61명(19.7%), 여성 249명(80.3%)으로 나타났다. 호명된 구성원의 직업은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성별 외 연령, 교육수준, 직업, 출신지역 등의 대한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에 의한 결과는 관계유형별로 그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지면상 생략한다.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카이제방식인 요인 간 상관행렬의 고유치(eigen value) 1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들만을 선정하는데 이것은 각 요인이 1변수의 분산정도는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요인이 각 변수들의 분산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로 공통성(communality)이 0.50 이상인 문항들을 선택하였다. 또한 문항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을 살펴보았는데,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이 0.4 이상이 되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0.5가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채서일, 2001: 562). 그리고 변수들이 여러 요인에 비슷하게 요인부하량을 나타낼 경우 각 요인을 분류하기 힘들므로 변수들이 하나의 요인에 높게 적재할 수 있도록 회전축이 직각을 유지하는 Oorthogonal방식을 적용한 직각회전방식 중 VARIMAX 방식을 선택하여 적합한 요인구조를 파악하였다.

## ② 분석결과

대학생 연줄망의 기능적 속성에 해당하는 16개 문항을 직각 회전한 결과 4개 요인으로 묶었다. 그러나 문항 1과 문항 15의 경우 공통성이 각각 0.174(17.4% 분산설명), 0.216(21.6% 분산설명)으로 매우 약하고 내용상 타당도가 저해되지 않아 전체 문항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다시 직각 회전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으며 14개 문항이 4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4개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은 68.2%이다. 각 요인에 대해 요인 1은 정서적 기능으로, 요인 2는 영적 기능으로, 요인 3은 경제적 기능으로, 그리고 요인 4는 사회관계적 기능으로 명명하였다.

## (2) 신뢰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묶어진 대학생 연줄망의 기능적 영역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 총 14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설명해주는 알파계수 값이 0.716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 (3) 타당도 검증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는 측정도구가 실제로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를 전반적인 이론적 체계 하에서 다른 개념과의 관계에 의해 검증하는 방법이다(채구목, 2003). 즉, 특정개념의 이해와 관계된 이해타당도, 측정방식에 관계없어야 한다는 집중타당도, 다른 개념과는 상관관계가 판이하게 낮아야 한다는 판별타당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채서일, 2001: 268).

이러한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포커스 그룹 토의내용을 토대로 척도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대학생 면대면 심층인터뷰를 통해 측정대상이 가지고 있는 연줄망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점검을 통해 문항들을 수정하였다. 이는 본 대학생 연줄망의 기능적 영역 척도의 이론적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구성타당도가 평가되었다. 이는 요인내의 항목들은 집중타당도에 해당되며 요인 간에는 판별타당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표 6〉 대학생 연줄망의 기능적 속성 척도의 회전 후 요인부하량 행렬

문항번호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공통성 (communalities)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6	.763	.027	-.199	.059	.625
13	.699	.014	.178	.042	.522
5	.676	-.011	.263	.267	.597
12	.666	.165	.061	-.162	.501
11	.614	.073	-.484	.144	.637
7	.610	.031	-.286	.135	.473
16	.590	-.037	-.124	.456	.573
8	.032	.918	.046	.018	.846
9	.064	.917	.001	.038	.846
10	.066	.857	.232	-.040	.795
3	-.029	.145	.925	-.097	.887
2	.009	.148	.924	-.102	.885
14	-.062	.064	-.237	.796	.698
4	.461	-.048	.063	.662	.658
고유값	3.294	2.503	2.301	1.446	
설명분산	23.527	17.881	16.436	10.331	
누적분산	23.527	41.408	57.844	68.175	

#### 4. 결론 및 논의

연줄망(network)은 다양한 학제적 연구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 속에서도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다. 특히 연줄망은 자원의 집중이라는 중앙 수구적 차원인 동시에 자원 부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연복지적 차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카로운 양날을 지닌 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성인기 진입을 위한 대학생들의 네트워크나 관계의 구체성, 교환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성인 일반, 10대 중고등학생이나 혹은 노인과는 달리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들은 10대 중고등학생이나 노인의 경우처럼 취약한 집단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대학생이라는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과업을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대학생들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발달 과업의 스트레스를 극복, 적응해 나가기 위해 연줄망을 통하여 서로 돕고 협력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정서적 위안을 얻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연줄망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타당도가 확보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양적 및 질적 연구방법론을 병행하여 문항개발과 검토 수정, 전문가 포커스 그룹, 사전면접조사, 사전조사, 본 조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사회자본, 네트워크 등에서 출발하였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망, 대학생의 욕구에 대한 문헌연구와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은 포커스 그룹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어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인 대학생들과의 면대면 심층인터뷰를 통해 개발된 척도에 정확성을 기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발된 예비문항으로 동계 영어특강 수강 대학생들 50명과 '09년 1학기 학부생 58명에게 각각 1차 및 2차 사전조사를 실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신뢰도가 낮은 문항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을 거쳐 예비척도를 확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 520명을 임의 표집하여 확정된 척도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500부였으며, 분석결과, 연줄망의 관계적 영역 2개, 구조적 영역 7개, 기능적 영역 14개로 총 23개 문항의 척도가 개발되었다. 연줄망의 기능적 영역에 대한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정서적·경제적·영적·사회관계적 기능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Cronbach's  $\alpha$ 값이 0.716으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대학생 응답자와 대학생 응답자가 호명한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학생 응답자가 호명한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출신지역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 연줄망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로써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대학생들의 연줄망 측정 도구 개발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은 충족되었다. 대학생들의 연줄망을 측정하기 위한 높은 신뢰성과 타당도를 지닌 측정도구의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서울 경기 수도권의 대학생들에 제한되어 있어 향후 전국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구성비와 차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표집을 통해 다시 점검하고 척도를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기존 연줄망 척도에 대해서 비판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일반 성인이 아닌 '대학생'이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첫 연구로서 본 연구는 신뢰와 네트워크 호혜성과 관련된 사회 자본 연구의 한 축에 기여하고 있다. 일반 성인 및 10대 중고등학생, 노인과는 달리 대학생들의 연줄망은 성인기 진입 전 단계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진로 정보와 취업, 학비와 생활비의 충당,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과 의사소통 기술, 종교적 의존 등 대학생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연줄망의 양태와 구체적인 질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고, 향후 대학생들의 연줄망을 통한 삶의 욕구 해소라는 측면에 연구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대학생 연줄망 척도가 세 가지 속성, 즉, 관계적, 구조적, 기능적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관계적 특성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복지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복지욕구 중 특정 복지욕구 충족에 더 크게 기여하는 변수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복지사회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연줄망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정책적 요인들에 대해 제언을 하는데 유용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구·임경원. 2006. "장애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친구관계". 『특수교육연구』
- 강성희·김주희. 2001. "한국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과 역할". 『생활문화연구』
- 강성희·이은희. 1999. "남녀 대학생의 사회적 관계망과 고독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고윤주·이은혜, Mortom J. Mendelson. 2001.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친구 의 지원, 갈등해결 방식 및 친구 관계망간의 구조모델: 청년 초기, 중기, 후기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고윤주·이은혜, Mortom J. Mendelson. 2002.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친구관계 비교 연구: 친구의 지원, 갈등해결 방식 및 친구관계망". 『한국심리학회지』
- 교육인적자원부(2009). 2008년 교육통계연보.
- 구지현·서경현·정성진. 2005. "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생활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 『한국심리학회지』
- 권민하. 2004. "여성장애인의 사회관계망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김계수. 2007. 『Amos 7.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광숙·라진숙·박주영·조윤희. 2008.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망 및 건강 습관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
- 김교현·전경구. 199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 경험 분석". 『한국심리학회』
- 김명소·임지영. 2003.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구성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과과의 관계분석: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김병주·손석정. 2005. "운동선수의 사회적 관계망 및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 김보경. 2005. "문중공동체의 이념과 유교적 사회자본". 『동양사회사상』 제11집
- 김선업. 1991. "한국 대도시 주민의 개인적 연결망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 김용학. 2007. '디지털인맥' 사회학, 주간조선, 조선일보사
- 김우식. 2006. "연결망, 불평등, 위법행동". 『한국사회학』 Vol. 40.
- 박준식·이재혁. 2000. "한국인의 사회연결망과 연고주의". 『아시아문화』 제 15호
- 박찬웅. 1999. "경쟁의 사회적 구조-기업 내 신뢰의 사회적 연결망과 개인의 조직 내 성과". 『한국사회학』
- 손동원. 2008. 『사회 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 신희천·한소영. 2006.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안창일·오가혜. 2006.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유석춘. 2004. "유교와 시민사회".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Vol. 11.
- 이경상. 2001. "취업시장에서의 개인적 연결망의 특성과 직업성취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 이명희. 2001. "한국문화: 유교사회의 연복지 문화에 관한 미시적 고찰". 『한국사상문화학회』
- 이재열. 1998. "한국인의 연결망-사회의식과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이정희. 2006. "사회적 관계망이 중증 여성장애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이창호·전강구·한덕웅. 1991. "한국 대학의 생활환경 변화와 대학생활 적응".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정상진·정주훈. 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한국사회학』
- 정재기. 1997. "한국인의 개인적 연줄망에 대한 경험적 연구-사회적 자본 개념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채구목. 2003. 『사회조사방법론』. 과주: 양서원.
- 채서일. 2001.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서울: 학현사.
- 최영출. 2006.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 거버넌스, 서울: 대영문화사
- 최영희. 1999. "대학생활적응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연구". 『청소년복지연구』
- 최현숙. 1991. "한국의 사적 원조연결망에 있어서의 상례부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 한상미. 2007.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측정도구 개발". 『사회복지연구』 Vol. 33
- 홍경준. 2000. "연복지의 논리, 실태, 그리고 가능성의 탐색". 『사회복지연구 제 16호
- 안청시 외 역, 2007.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1994. 서울: 박영사
- 구승희 역, 2007. 트러스트-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Fukuyama, F. Trust. New York: Free Press. 1995.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Berkman Lisa, F. and Thomas Glass, 2000 Social integration,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In Berkman & Kawachi (editors.) Social Epidemi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urt, Ronald. S. 1982. Structural Hole: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E. Karen, Peter V. Marsden, and Jeanne S. Hurlbert. 1986. "Social Resources and Socioeconomic Status." Social Networks 8.
- Cohen Sheldon, and Leonardo S. Syme. 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Orlando: Academic Press.
- Coleman, Jame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 De Graaf, D. 2003. "Social Capital." Parks and Recreation, Vol. 38
- Ellis, Albert. 2000. "Can REBT be effectively used with people who have devout beliefs in God and religion?" Professional Psychotherapy in Private Practice, 31.
- Ensel, Walter M. 1979. "Sex, Social Ties, and Status Attainment."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 Erikson, Erik. H. 1968. Identity an the Life Cycl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Franke, Sandra. 2005.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Reference Document for Public Policy Research, Development, and Evaluation. Policy Research Initiative, Canada
- Granovetter, Mark. 1973.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 Grootaert Christian, Deepa Narayan, Nyhan V. Jones and Michael Woolcock. 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Questionnaire." World Bank Working Paper No. 18. World Bank, Washington, DC.
- Heaney, C. Ann and Israel, B. A. 2002.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In K. Glanz, F. M. Lewis, and B. K. Rimer(Editors.),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 practic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Heller, K., Ralph W. Swindle, and Linda Dusenbury. 1986. "Component social processes: Comments and integr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 Lin, Nan. 1982. "Social Resources and Instrumental Action." in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Beverly Hills, CA: Sage.
- Lin, Nan. 1999. "Social Networks and Status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 Lin, Na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sden, Peter. V. and Karen, E. Campbell. 1984. "Measuring tie strength." *Social Forces*, 63.
- Marsden, Peter. V. and Jeanne, S. Hurlbert, S. 1988. "Social Resources and Mobility Outcom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Social Forces*, 66.
- Ostgaard, T. A. and Birley, S. 1996. "New venture growth and personal network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36
- Rowley, T. 1997. "Moving beyond dyadic ties: a network theory of stakeholder influen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2, No.4.
- Scott, J. 2000. *Social Network Analysis, second analysis*, London: SAGE Publications 4. *Network-Based Approaches for Measuring Social Capital*
- Seeman, T. E. and Berkman, L. F. 1988.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ocial support in the elderly: Who Provides support." *Social Science & Medicine*, 26

## Development of Scale for College Students' Social Network

**Choi, Jong-Hyug**

(Ka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Kim, Hyung-Jun**

(Songho College)

**Ahn, Tae-Sook · Huh, Jung-eun**

(Ka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Kwon, Hyuk-Soo · Kim, Hyojung**

(Ka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cale for the social network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social network scale for college students in this paper was developed through 1) literature review and item development 2) focus-group meeting 3) depth-interview with college students 4) pilot-studies and 5) study. The scale of 23 items has been constructed with three features : The first is 'relational feature' with 2 items; the second 'structural feature' with 7 items; and the third 'functional feature' with 14 items. The functional feature in this social network scale has consisted of emotional, economic, spiritual, and socio-relational aspects and has been revealed to the validity and the reliability of Cronbach's  $\alpha$  0.716.

This study would contribute for college students to solve the many problems in their own lives through the social networks.

Key words: Interpersonal networks , social network, college students, validity, reliability, Scale

[논문 접수일 : 09. 06. 30 심사일: 09. 07. 21 게재 확정일 : 09. 08. 13]